

18대 국정감사 의미와 내용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농식품위 전체 19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10명을 차지한 이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은 타 위원회에 비해 여야의 입장에 따른 정치쟁점화가 덜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각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이슈를 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정책조정실 김광천 차장

*주요 쟁점 정리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 촉구

- 국민들에게 먹거리 불안을 야기시킨 멜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식품안전 강화를 주문했다. 일부 의원은 농식품부의 능력대치를 질타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이원화된 식품업무 체계를 농식품부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이다.

●새 정부 역점사업에 대한 검토와 우려 표명

- 새로 들어선 농식품부의 역점사업 방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시군유통회사 및 농기계임대사업,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의 되는 정부 직영의 영농대행사업을 추진을 주장하고, 유통회사 설립은 기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온 농협, 수협 등 생산자 단체와 역할이 중복되고 회사 적자 및 도산 시 농어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장태평 장관 취임 이후 농식품 수출목표인 '2013년까지 100억달러로 목표치' 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한미FTA 보완대책 문제점 지적

- 한미FTA 보완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한결같이 실효성이 낮고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의 치밀한 피해예측 및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연구나 준비가 미흡하고, 한미FTA로 순수하게 증액돼 투용자되는 지원규모는 8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또한 한미FTA와 관련된 집행유보 사업비 3895억원을 국회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의 허술한 관리체계 질타

- 2006년 직불금을 수령한 99만8000여명 중 17만여명의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정부의 미진한 회수실적과 관리체계를 질타가 쏟아졌다.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실경작자 아닌 비농민이 최소 17만, 최고 28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정부의 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지적했다. 대책으로 정확한 농지실태조사, 통작거리 제한 도입, 농지원부 일제 정비 등을 주문했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촉구

- 농가부채 해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년간 농가부채는 76% 증가한 반면 소득은 55% 느는데 그쳤고 도농간 소득격차도 더 벌어졌음에도 전체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부문 예산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농약이므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의원들은 곡물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고, 쌀 매입가는 농자재값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결정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국정감사 평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쌀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였다. 이는 농식품위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을 뒤흔든 메가톤급 의제로 전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11월 10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직불금 외에 농업계의 산적한 문제는 이렇다 할 빛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농가생산비 안정방안, 농가부채, 협동조합 개혁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큰 탄력을 받지 못했고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국정감사가 농민들에게도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동안 농민단체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타 상임위와 달리 정치적인 대립은 지양하고 여야 모두 ▲농업예산 확대와 어려운 농가현실을 반영한 점 ▲권위주의적 질의태도 개선 ▲전문성 향상 등은 높이 평가된다.

*한농연 '국감베스트 위원' 선정

● 한농연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국정감사 모니터단'을 발족하였다. 농민단체 중 유일하게 모니터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의원들의 질의와 정부의 대책 등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나라당 신성범,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을 '2008년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모니터 요원들이 성실도와 정책제안 참신성, 농업계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충실성 등을 토대로 이같이 국감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신성범, 황영철 의원은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및 충실성에서 최규성 의원은 피감기관 긴장도, 유성엽 의원은 참신성과 성실성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국감의원들에 대해 우수국감의원 패를 전달하고 지역 구 농민들에게 의원들의 우수 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